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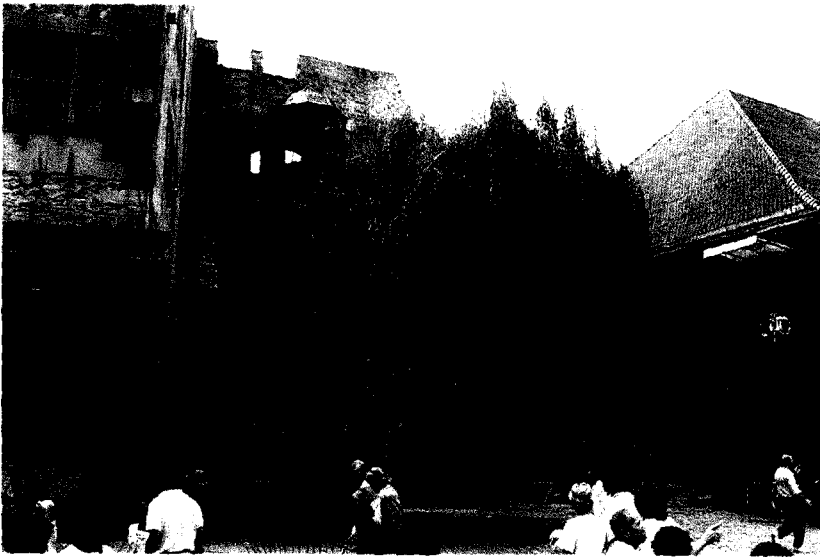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조경수목 산책 (IX)

—버드나무—



임 경 빈 / 아카시아연구회장



▲ 독일, 하이델베르크 성내의 능수버들. 1988. 8. 10.

버드나무 하면 먼저 능수버들을 생각하게 된다. 가지가 아래로 축축 늘어지는 능수버들은 그 자태가 아름답기 때문에 옛적부터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래서 인류의 문화생활의 깊숙한 곳을 찾아 들었다.

능수버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의 평온같은 것을 느끼게 되고 무언가를 사색하게 되어 차분해진다.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다음 조헌(趙憲)의 시조는 능수버들이 지니고 있는 정감(情感)의 속성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지당에 비 뿌리고
양류에 내 끼인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매였는고
석양에 짝 잃은 갈매기는
오락가락하더라

이때 양류(楊柳)는 능수버들이

나 수양버들을 뜻할 것이다.

1. 버드나무 과 그리고 버드 나무 속

버드나무과(Salicaceae)에는 두 가지속 즉 버드나무속(Salix)과 포플러속(Populus)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라면 꽃대궁에 꽃이 붙어서 짐승의 꼬리처럼 보인다는데 있다. 이러한 꽃차례(花序)를 유제화서(柔荑花序)로 말하고 꼬리화서라고도 말한다. 꼬리화서의 모양은 버드나무의 종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봄이오면 꼬리화서인 버들강아지는 먼저 봄소식을 알리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다.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는 모두 자웅이주(雌雄異株)로써 암나무와 수나무의 구별이 있는데 은행나무도 그러하다.

이것을 이가화(二家花)로 말한다. 한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함께 피는거라면 일가화(一家花)로 말한다.

암꽃대궁에는 많은 암꽃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성숙하게 되면 저절로 터져서 그안에 들어 있는 열매가 바람에 날아가면서 날아 나오는데 그 열매의 크기는 매우 작고 굵은 먼지만 하다. 그리고 이 작은 열매에는 긴 솜털이 많이 붙어 있어서 얼핏 솜처럼 보인다. 그래서 솜털열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버드나무과 수목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로 말할 수 있다.

늦봄이나 초여름쯤되면 이 솜털열매가 바람을 타고 많이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 솜털열매는 봄하늘을 가득 채우는 흰눈송이와도 흡사하고 옛적부터 사람들 눈에 아름답게 비쳤다. 그래서 버들꽃(柳花)으로도 표현되고 특히 한시의 소재로 되어 많은 읊음이 있다.

이것을 한자로는 유서(柳絮)라고 하는데 서(絮)자는 솜서로 읽는다.

앞에서 말했지만 버드나무과의

수종은 그 열매가 작아서 그 안에 충분한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어미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하면 그 수명이 오래 못가고 약 1주일 이내에 생명력이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솜털로 날아날아 먼곳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종족 자손을 멀리까지 퍼뜨려 보겠다는 속셈때문이고 모든 생물은 그들의 생존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창조원리의 적응특성을 가지고 있다.

버드나무속의 나무는 특히 물이 있는 땅을 좋아하는데 어느정도 축축한 땅에 열매가 떨어지면 이내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한다. 24시간이내에 열매는 어린 새싹으로 변하고 성큼 자라서 위로 올라간다.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들인데, 저장양료가 적다보니 빨리 광

▼ 능수버들이 있는 길, 수원 농과대학 정문 앞, 1975. 10. 5



▲도오교 메구로의 능수버들, 1973. 9. 21.

합성(光合成)을 해서 자람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충분한 광선을 요구하게 된다.

수많은 열매중 제자리를 잡아 하나의 생명체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거의 모든 열매는 그대로 생의 종말에 이르고 만다. 이와같이 본다면 버드나무는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 셈이다.

2 능수버들과 수양버들

능수버들이나 수양버들이나 그 모습이 비슷해서 그 구별이 어렵다. 식물학적인 기재를 보면 수양버들의 자방(子房)에는 털이 없으나 능수버들에는 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가지고 구별을 하겠다 면 꽃필때 암나무에만 적용될 수 있어서 일반적인 식별점이 되기 어렵다.

되도록이면 앞으로 구별이 되었으면 하지만 어려운 모양이다. 버드나무종류는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잎을 내고 가을이 되면 가장 늦게 잎을 떨어 뜨린다. 그래서 잎의 생명이 낙엽수종으로서는 가장 길다.

능수버들은 수류(垂柳)로 쓰고 수양버들은 수양(垂楊)으로 쓴다. 류(柳)는 음이 류(流)에 통해서 가지가 처진다는 뜻을 담고 있고 양(楊)은 음이 양(揚)에 통해서 가지가 위로 서는 양(楊)임을 뜻하고 있다. 훈몽자회(訓蒙字會)라는 책을 보면 양기자(楊起



▲스위스 로잔노호반의 능수버들. 1988. 8. 15

者)이며

柳枝弱 而垂流故謂之 柳

버들은 가지가 약해서 아래로 처지므로 이것을 류(柳)로 말한다고 했다. 따라서 양(楊)은 가지가 위로 서는 종류를 말함이다. 그래서 수양버들이라 하면 가지가 처지는 양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수양버들은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고 능수버들은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수양버들을 간혹 수양(隋楊)버들로 쓰고 해석하는 일이 있다. 그 사연을 알아보기 위해서 역사의 한모퉁이를 캐본다. 수나라를 세운 양견(楊堅)은 무척 공처가였는데 그가 병들자 그의 아들 광(廣)은 병석에 있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이것이 바로 수나라 양제이다. 권력을 위해서는 윤리라든가 도덕은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 극히 가까운시대

에 이르기까지의 일이었다.

수나라때의 큰 사건이라면 중국의 강남지방과 북쪽 북경근처까지를 연결하는 운하의 건설이고 또하나의 고구려침범을 들 수 있다. 운하를 만든 것은 고구려침공때 전쟁물자를 고구려국경지대로 운송하기 위한 계략이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양제는 낙양에 호화스러운 궁전을 만들고 운하제방에 따라 버드나무(수양버들)를 심고 40개의 이궁(離宮)을 세우고 아름다운 여자를 모아 호탕한 생활을 즐겼다. 낙양의 궁전을 만드는 데는 한달에 200만명의 노동자를 사역했다 하고 운하의 개설에는 여자를 포함해서 100만명을 징집했다고 한다. 그중 40~50퍼센트는 죽음을 당했다.

일차 고구려 원정에는 병사와 인부 400만명을 동원했으나 싸움에 패하고 80~90퍼센트의 인명이

죽음을 당했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양재인데 그는 운하를 따라 버드나무를 심게해서 성공한 업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나라 양재의 버들이라 해서 수양버들을 내세우는 측면도 있다. 양재가 수나라 왕위에 오른 것은 서기 604년이고 을지문덕장군이 살수에서 수나라 군사를 섬멸한 것이 서기 612년이다.

대운하의 공사가 시작된 때는 서기 605년이다. 물이 흐르는 운하제방에는 수양버들이 경관적으로도 제격이었을 것이고 생태적으로도 어울리고 미녀들과의 탕유에도 제격이었을 것이다. 양재는 이궁에서 놀이에 탐닉하다가 측근의 귀족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백성들의 봉기도 있었는데 양재는 말하기를 『인구가 많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된다』고 해서 백성들의 항의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이러한 수양버들이 어느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인지 그 연대를 말하기는 어렵다.

다음시는 수양의 호유를 나무라고 빨리 궁궐로 돌아 갈 것을 암시한 것이라 한다.

양류청청착지수
양화만만교천비
유조절진화비진
차문행인귀불귀

楊柳青青着地垂
楊花漫漫攬天飛

柳條折盡花飛盡
借問行人歸不歸

버들은 푸르고 가지는 땅으로 쳐졌다.

버들꽃은 하늘 가득히 메워 날린다.

버들가지는 모조리 꺾이어 날아날 버들꽃이 다했다.

묻노니 손님이며 돌아갈것이나 아니냐.

수양재의 떠남을 바라고 있는 함축이 있다. 이 시에 버들가지가 많이 꺾이어 남은 가지가 별반없고 그래서 버들꽃도 없다는 대목이 있다. 예전 중국의 습속으로서 이별할 때에는 버드나무의 가지를 꺾어 나누었다고 하며 이별하는 곳이 대개 도선장(渡船場)이고 도선장은 물가이고 보면 그곳에는 으레히 수향목(水鄉木)으

로써 버드나무가 서있었을 것이다. 늘어진 가지는 흐르는 눈물과도 같아서 이별을 아쉬워하는 상징물로써 알맞았다고 본다. 중국 사람들은 버드나무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음을 느끼고 벽사(辟邪)의 힘을 인정했다. 서기 5세기쯤에 나온 중국의 최고 농업서라고 할 수 있는 제민요술(齊民要術)에 보면 『정월 초하루날 아침에 버드나무가지를 꺾어 문간에 달아두면 백가지 잡귀신이 들어 오지 못한다』라고 있다.

그래서인지 중국에서는 옛적부터 송별할 때 버드나무가지를 주었다. 중국 옛적 서울 장안(長安)을 떠나는 사람을 송별할 때에는 동쪽에 있는 파수(灞水)의 다리목까지 따라 갔다. 그래서 파수교라 하면 손님을 보내는 상징적인 다리이름으로까지 인식되어 왔다.

한중(韓琮)의 양류지사(楊柳枝)

▼ 천안삼거리의 능수버들. 1976. 11. 7.



詞)에 보면

파릉교(灞陵橋)위에 이별이 많고
버들긴가지 땅에 닿이는 것이 적다
라는 대목이 있다. 즉 파수에 가로놓인 다리위에선 자주 이별이 있어서 다리목 수양버들의 늘어진 가지는 꺾이어 거의 없었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역(西域)이나 인도쪽으로 향하는 서쪽의 이별에 있어서는 동쪽의 이별과는 달라 서경(西境)의 쓸쓸함과 비장한 느낌이 울렁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문밖 위성(渭城)까지 전송하고 버들가지를 엮어서 떠남을 슬퍼했다.

왕유(王維)의 다음 시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위성(渭城)의 아침비가 가볍게 먼지를 눌렀는데
객사(客舍, 여관)의 버들빛이 푸르고 푸르구나
그대에게 다시 권하노니
한잔의 술을
서쪽 멀리 양관(陽關)을 나서면 술 권할이 없지 않는가.

송별에 버드나무가지를 준 것은 버드나무의 비상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인정한데서 오는 것으로 보는 풀이가 있다.

유우석(劉禹錫)의 양류지사(楊柳枝詞)가 있는데 이것은 양재의 일장춘몽을 그려낸 시라고 할 수 있다.

양재의 이궁이 있던 변수(汧水) 물가에
남아있는 몇그루의 버들이
봄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물어가는 날 바람이 일어나니
버들꽃이 눈과 같이
날아서 이궁 안으로 뿌려지나
사람의 그늘을 볼 수 없다.

이 시는 양재가 심어둔 운하 주변의 버들은 지난날의 그것과 다름없이 눈꽃을 휘날리지만 이궁(離宮) 안의 양재의 영화는 이미 끝이 났다는 것으로 인간 유전의 허무함을 잘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양재뿐만 아니라 지나간 역사의 단장(斷章)마다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버들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어느곳이든 찾아 들고 있다.

3. 한성십영(漢城十詠)과 버드나무

우리나라의 고전 동국여지승람

▼ 부여, 남궁지의 능수버들. 1993. 6. 9.



에 보면 한성부제영(漢城府題詠)조에 한성십영(漢城十詠)이 있다. 그중 반송송객(盤松送客)이 있는데 반송정(盤松亭)은 돈의문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있었다고 하며 그 부근에는 소나무숲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이 손님을 전송하는 곳이므로 버들도 있었다. 서거정(徐居正)의 시제(詩題), 고인별아가(故人別我歌) (친구가 나를 보내면서 노래하다) 가운데

도문양류불감절
방초유한하시휴
都門楊柳不堪折
芳草有恨何時休

성문밖에 있는 버드나무가지를 차마 꺾기 어렵고 아름다운 꽃필의 한스러움은 설 날이 없다는 대목이 있다. 반송정부근에는 이별을 위한 버드나무가 심어졌음을 말해 준다.

4. 보한집의 녹양역

보한집(補閑集, 13세기때 崔滋 지음)에 보면 지금의 경기도 양주(楊州)의 역명이 녹양역(綠楊驛, 고려때는 見州)이었고 동국여지승람 양주목에 다음시가 기록되어 있다.

유화촌가중
무류역명고
교목일선조
고상풍자호

有花村價重
無柳驛名孤
喬木日先照
枯桑風自呼

꽃이 있어서 마을이 소중하고 버들이 없으면 역이 외롭다. 햇빛은 높은 나무에 먼저 오고 마른 뿔나무잎은 스스로 바람을 부른다.

이 시를 보더라도 역이란 역에는 버들이 있어야 격에 어울린다는 것이며 역이란 이별이 있게 되는 곳이다. 이처럼 중국의 옛 습속이 우리나라의 각처에까지 찾아든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력이야 어떠한건간에 능수버들은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창세기와 버드나무

성서에 나오는 나무이름은 번역본에 따라 차이가 더러 있다.

창세기에 나오는 버드나무는 책에 따라서는 미류나무로 된 것도 있는데 당시 미류나무가 유럽지방에 있었을 리가 없다.

미류나무가 유럽에 도입된 역사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는다. 그래서 버드나무로 해서 내용을 그대로 이곳에 옮겨 본다. 참고로 한 책은 1977년 대한성서공회발행 가톨릭용 공동번역 성서이다.

필자는 이 대목에 대한 풀이를 할만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유감이나 얼룩지게 껍질이 벗겨진 버드나무가지를 보고 양들이 얼룩진 양을 생산했다는 극히 표면적인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환경감응(環境感應)의 초능력적인 힘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때인가 기회가 오면 이부분에 대한 종교적(?)인 해석을 들



▲ 능수버들, 원광대학교 운동장 주변, 1988. 10. 6.

「야곱은 버드나무(미류나무)와 살구나무(감복숭아나무)와 플라타너스 푸른 가지들을 꺾어 흰 줄무늬가 나게 껍질을 벗겼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가지들을 물먹이는 구유 안에 세워 놓아 양떼가 와서 그것을 보면서 물을 먹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하였다. 양들은 그 나뭇가지들 앞에서 교미하고는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진 새끼를 낳았다.」

어 보고 싶다. 창세기에서 버드나무는 큰일을 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버드나무아래의 쇼팽(chopin)

쇼팽은 폴란드가 낳은 유명한 음악가이다. 나는 1980년 9월하순경에 폴란드 코르닉(Kornik)에서 개최된 「국제 소나무학술회의」에 참석하고자 9월 21일 서울을 떠나 동경, 애틀란타, 뉴욕, 바르샤바

를 거쳐서 포즈난으로 갔다. 코르
닉 도착은 9월 27일로 되어 있다.

당시는 두나라사이에 국교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입국하
가는 일본 동경에 가서 받아야 했
다.

폴란드 대사관에 있었던 대화
의 일부분이다.

「나 폴란드로 가야 겠는데 입
국허가(비자발급)를 부탁드립니다.
학술회의에 참석할 목적입니다」
직원이 무언가 조사해 보더니

「당신 나라 사람에겐 입국허가
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
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학문하
는 사람이요, 당신나라는 평화와
학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비자발급을 하면 나의 목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보아하니 당신의 인상은 장차
큰 정치가로 될 수 있는 상이요,
작은 인물은 규정에 사로잡히고
큰인물은 규정을 요리합니다」

이런 대화가 나누어 지면서 그
는 비자발급을 해 주었던 것이다.
잊을 수 없는 대화의 내용이었다.

10월 6일 나는 바르샤바 시내
공원에 있는 쇼팽의 동상으로 갔
었다. 그는 버드나무아래에 앉아
있었고 산들바람이 불어 버드나
무가지가 한편으로 나부끼고 있
었다. 왜 하필이면 버드나무일까
하는 생각이 머리속을 스쳐 지나
갔으나 나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
다. 아마 바람따라 흐르는 버드나

무가지는 아름다운 음악의 선을
그것이였기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능수버들 아래에 앉아있는 쇼팽. 폴
란드. 바르샤바. 1990. 10. 6.

내가 이 동상의 사진을 찍는 동
안 고등학교생쯤으로 보이는 여
학생들이 접근해와서 동양계의
사람에게 호기심을 가지는듯 했
다. 그중 한 여학생은 나의 수첩
에 이름과 주소를 써주면서 서울
로 가거든 편지도 하고 사진도 보
내 달라고 했다.

이름은 자니바(Janiva)였다.
사진도 편지도 보내지 못한 것으
로 기억하고 있다.

7. 박대통령과 수양버들

내가 알고 있기론 박정희대통
령은 나무와 숲 그리고 자연경관
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아 부었
다.

봄철 식목의 날 행사때에는 많
은 나무를 심었고 육림의 날을 만
들어 가을에는 나무가꾸기에 힘
을 썼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사
에 참여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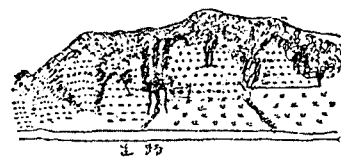
다음 그림은 1975년 8월 22일
한국일보에 게재된 것인데 박대
통령이 대구로 내려가면서 서울
-수원간의 도로면 녹화를 구체
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연도(沿道)야산 녹화방안이라
쓰고 도로 양측에 심을 수종을 기
록하고 있는데 개나리, 철쭉, 병
꽃나무, 은행나무, 은수원사시나
무, 플라타너스, 오동나무, 수양
버들이 지적되고 있다. 수양버들
에는 능수버들도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박대통령의 뜻을 읽을 수
있다.

備註

서울주 — 水京(新居田)內
沿道兩側의 綠化方策
1. 道路兩側의 1KM(圖)內의 兩本國産樹木
2. 綠化樹木
개나리
진달래-천국
병꽃
은행
은수원
플라타너스
오동
수양버들

3. 樹木의 種類
가시(가시) 1본은 1본-1본
가시 兩本
고개(가시-가시) 兩本(兩本)
서울주, 山, 林, 水, 田, 田, 田, 田



▲朴大統領의 親筆과 圖解